

# 아파트 신축 소음·분진에 인근 주민 '아우성'

### 광주·전남 곳곳 "매연·두통 등 수년간 고통" 호소

### 시위 벌이며 대책 마련 촉구에도 지자체는 '팔짱만'

광주·전남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이 길게는 수년씩 소음·분진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사들의 횡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신축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 아파트는 광주 14곳, 전남 7곳 등 총 21곳이다. 이들 공사 현장에서는 소음·분진, 공사 차량 매연 등으로 주민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 입암마을과 나주 송월동,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건설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관할 자치단체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간 나주시 송월동 A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970세대) 주민들은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소음·분진 때문에 창문조차 열지 못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공사업체가 설치한 3층 높이 방음벽에 창문이 가려진 인근 1·2층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함께 집안 내 통풍도 되지 않아 이증고를 겪고 있다.

주민 김모(60)씨는 "지난 7월 땅을 다지기 위한 파일 공사로 오전 8시부터 6~7시간 동안 극심한 소음이 발생해 일부 주민들은 두통까지 호소할 정도였다"며 "파일 공사가 끝나 소음이 없어졌다고 안심했는데 최근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며 덤프트럭 수십 대가 하루종일 오가는 바람에 매연 때문에 못살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옥암동 평화광장 인근 주민들도 B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소음, 분진, 매연, 교통 방해 등 각종 피해는 물론 건물에 금이 가는 재산피해까지 입고

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민들도 C아파트 공사 소음 때문에 새벽잠마저 설치고 있다.

주민 이모(40)씨는 "새벽부터 굴착기 삼키는 소리와 함께 마치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 17일 해당 건설 업체에 대해 공사 시간대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지도와 함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지만, 공사 소음 피해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 입암마을 주민들도 효천1지구 공사 때문에 3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공사차량 통행로로 전용되면서 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피해 곡에 하듯 마을을 오고 가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한 주민이 공사 트럭을 피하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었다.

3년여가 지난 7월 초에야 공사업체들이 통행로를 따로 만들어 진입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주민들은 조망권을 비롯한 분진, 소음 피해 방지 등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집회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진동, 분진을 최대한 줄이도록 공사업체에 통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음 등이 법적 기준을 넘지 않으면 협조 요청만 할 뿐 별다른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 전공 교수는 "지자체가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때 정확한 공사 일정과 공정을 기입하도록



29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자체는 공사 피해가 발생한 주민이 부담없이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며,

주민들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또 범인 도주... '어수룩한 경찰'

### 음주운전 단속 30대 조사 대기 중 수갑찬 채 달아나

### 광주서부경찰 지명수배자 놓치는 등 울들어만 두번째

광주서부경찰이 범죄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남성 A(34)씨가 수갑을 한 손에 채워진 상태에서 달아났다.

A씨는 전날 밤 음주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려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으며, 이날 유치장에서 교통과 사무실이 있는 별관 건물로 이동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이 채워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의 팔걸이를 파손하고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사실을 2분여가 지난 후에야 파악했으며, 점심시간이었던 탓에 평소 15명이 근무하는 교통조사계에는 조사 담당을 포함해 단 3명만 근무중이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나와 도보로 2km 정도 떨어진 상무지구 모 건물앞으로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나주 방면으로 도주했다. 특히 A씨는 경찰에서

34살 중국인이라고 진술했으나 신분증이나 지문 조회 등으로 확인된 신분정보도 아니어서 검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이 사무실 뒤편에 있는 외국인 전용 컴퓨터(신분 확인용)를 사용하기 위해 잠시 이동한 틈에 달아났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54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도로에서 지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울 들어 허술한 대응으로 범인을 놓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서부경찰은 지난 1월 25일 새벽에도 음주운전 단속 중 적발된 사기혐의 지명수배자를 놓쳐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서부경찰은 교통과에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담양 유명 맛집, 청소년 알바생에 갑질?

### "임금체불에 폭언·폭행 당했다"...노동청에 진정서

담양의 한 유명 맛집에서 일했던 청소년들이 임금체불과 함께 식당 주인 가족들에게 폭언·폭행까지 당했다며 노동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8일 담양의 한 식당에서 일했던 청소년 3명(현 고등학교 3학년)이 '식당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주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소는 숯불갈비 전문점이다.

청소년들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 해당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최근 그만둔 청소년들은 단체와 상담에서 "임금 체불은 물론 식당 관리인(홀매니저·대표 여동생)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은 이 식당에서 토~일요일 12시간(식사시간 제외 시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일당 7만원을 받아왔으나, 식당의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실제 근무 일수와 상관 없이 매달 7일 근무하고 70만원(일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청소년들이 주휴·연장근로·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또 "대표 여동생이 청소년들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입에 담가에도 힘든 심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특히 이 같은 욕설은 SNS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 30대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충격'

### 경남경찰, 탈선 교사 구속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30대 여교사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A(여·32)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부녀로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학생의 담임은 아니었으며, 올해 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피해 학생을 만났고 이후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음식 등을 사주겠다고 집 밖으로 불러냈다. A씨는 이후 피해학생을 자신의 승

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며, 결국 지난달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세월호 현장본부 불...5분만에 진화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내 현장수습본부 부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9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5분께 목포신항 현장수습본부와 코리아셀비티 사무실 사이에 설치된 전기선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바닥에 설치된 전기선 일부를 태우고 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탄 전기선이 선체 수색 작업 지점마다 설치된 CCTV와 연결돼 있어 CCTV 작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화물칸 수색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 음악 흥겨워 춤추다 버스 탑승 지연...승객 질책에 되레 행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들려오는 성인가요에 맞춰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다 버스탑승시간을 어긋나고 70대 남성이 이를 질책하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했다가 경찰서행.

○...2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73)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발 광주행 우등 고속버스에 탑승했으며, 공주시 탄천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한 틈을 타 휴게소에서 흘러나오는 노

랫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 탑승시간을 5분이나 넘기는 바람에 버스출발이 지연됐다.

○...박씨는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는 승객 황모(46)씨의 목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승객 한모(41)씨의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까지 했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잠깐 늦었을 뿐인데, 다른 승객들이 너무 심하게 따져 탓김에 폭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호텔 매매 임대 교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호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상 4층, 객실58개
- 전체 리모델링 (6억 투자)
- 연수원 등 기타시설 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8억 (융자 8억포함)
- 임대/교환 협의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 영업으로 순수익 4억 가능!

